

2019. 5월 제7호

BLOCKCHAIN 동향과 이슈



CONTENTS

이슈 리포트

OPINION

국내 정책 및 산업 동향

해외 정책 및 산업 동향

회원사 동향



BLOCKCHAIN 동향과 이슈

2019. 5월 제7호

CONTENTS

이슈 리포트	2
OPINION	20
국내 정책 및 산업 동향	25
해외 정책 및 산업 동향	36
회원사 동향	63

※ 「BLOCKCHAIN 동향과 이슈」는 본 협회 협력사인 '코인니스(Coinness)'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슈 리포트

■ 비트코인, 테크핀의 시대를 앞당기다

한국블록체인협회

비트코인, 테크핀의 시대를 앞당기다

※Chain Partners 4월 15일자 CP Insight 보고서

“미래 금융산업에는 크게 두 가지 기회가 있다. 하나는 모든 금융기관이 온라인화되는 온라인 बैं킹이다. 나머지는 전혀 다른 아웃사이드들이 주도하는 인터넷 금융이다”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한 말이다.

2016년 마윈은 테크핀(Technology + Finance) 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며 ICT 기업이 금융산업의 혁신을 주도할 것임을 예견했다. 실제로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 앤트파이낸셜은 알리페이를 활용한 결제뿐 아니라 자산운용, 보험, 신용평가 등에 진출하며 금융 플랫폼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참고로 앤트파이낸셜의 기업가치는 1,500억 달러(약 165조 원)로 이는 한국 4대 금융지주의 시총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 이전의 핀테크는 아이폰이 등장하기 전의 모바일과 같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의 등장으로 인해 테크핀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화될 전망이다. 당사는 미래에는 모바일이 곧 은행의 역할을 하는 금융 플랫폼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면 그동안 중국 경쟁사 대비 금융 사업이 미진했던 미국 ICT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는 이미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에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여 왔다. 만약 금융산업의 주도권이 글로벌 ICT 기업으로 넘어가면 소매금융의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로컬 은행들은 커다란 타격을 입을 위험이 있다.

테크핀 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현재 미국의 금융기업과 ICT 기업은 활발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가장 주목해야 할 두 가지 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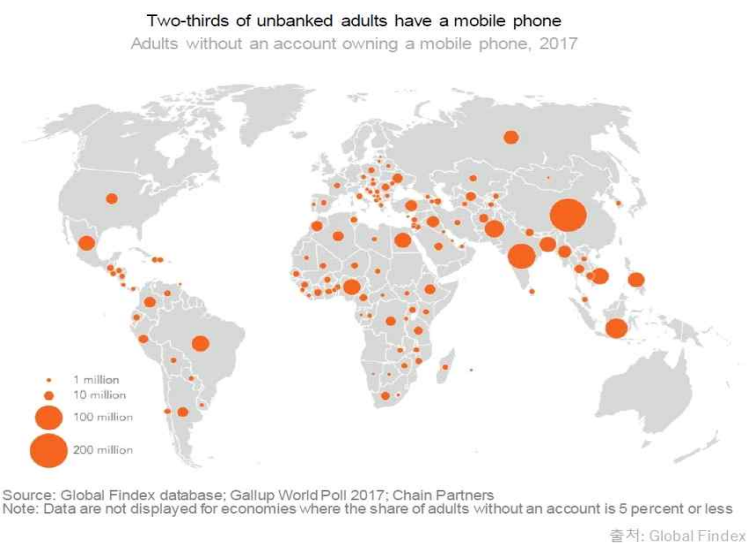
워크는 바로 “스타벅스-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마이크로소프트” 와 “골드만삭스-애플”이다. 이외에도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금융기업과 ICT 기업 간의 네트워크 형성은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점점 더 많은 대기업이 블록체인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명운은 대기업의 공세를 견뎌내고 어떤 협업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 당사는 본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테크핀 트렌드를 제시한다.

1. 모바일이 곧 은행인 시대

Global Findex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17억 명이 은행 계좌가 없고 이들 중 약 2/3이 스마트폰(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은행 인프라가 낙후된 개도국에서는 모바일이 곧 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은 모바일이 곧 은행인 시대를 본격적으로 앞당길 잠재력이 있다. 마치 신용카드 인프라가 충분히 깔려있지 않던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모바일 결제가 성장한 것처럼, 개도국에서도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각종 금융서비스가 성장할 잠재력이 높다.

전 세계 17억 은행 없는 인구 중 2/3이 모바일 보유



모바일의 은행화와 관련, 엠페사가 케냐에서 거둔 성공은 주목할 만하다. 엠페사는 2007년 보다폰과 현지 이동통신사인 사파리콤에 의해 출시되었다. 당시 열악한 은행 인프라를 갖추고 있던 케냐는 엠페사가 성장하기 최적의 환경이었다. 은행을 이용할 수 없던 케냐 시민들이 가까운 대리점을 찾아 현금을 건넌 뒤 엠페사를 충전하면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결제 및 송금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엠페사 덕분에 케냐 시민들은 은행 없이도 모바일만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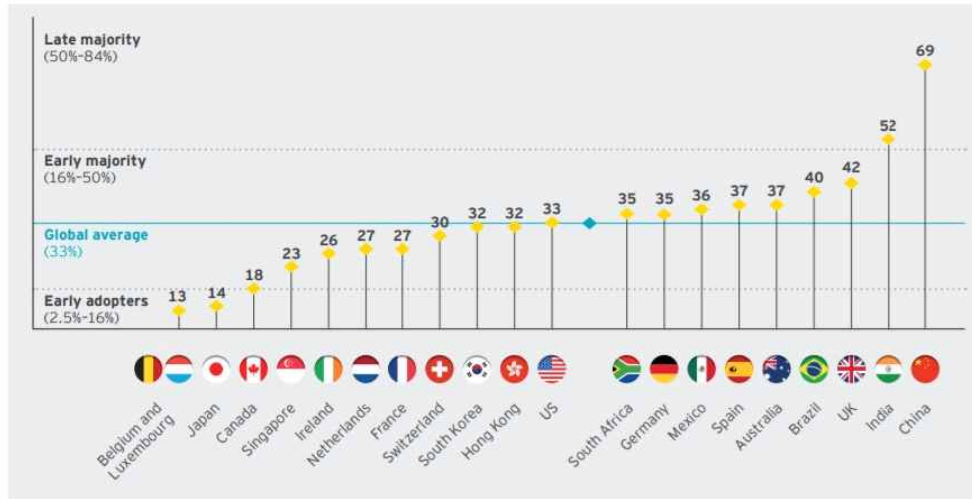
참고로 2018년 케냐의 모바일 머니 연간 거래액은 약 USD 385억 달러(약 40조 원)로 이는 케냐 GDP의 절반 수준일 정도로 케냐에서는 엠페사가 탑재된 모바일이 곧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엠페사는 케냐 이외에도 탄자니아, 가나 등 아프리카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페이팔, 웨스턴 유니온 등의 대기업과도 협업하고 있다.

중국도 모바일 은행화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중국에서는 현금이나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모바일만 있으면 어디서든 손쉽게 결제할 수 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거지도 모바일 페이로 동냥을 할 정도이다.

중국 모바일 페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알리페이와 텐페이는 각 9억 명과 8억 명이 넘는 사용자들을 보유하고 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간편결제뿐 아니라 송금, 대출, 자산운용, 보험, 신용평가 등에 진출하며 금융 사업을 키우고 있다.

이미 중국 시민들은 알리바바, 텐센트가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EY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핀테크 도입률은 69%로 전 세계 1위인데 이는 주요 20개국 평균 3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국가별 핀테크 도입률 (2017 년 기준)



출처: EY / 주석: 핀테크 도입률은 전체 인구 중 핀테크 서비스를 사용하는 인구 비율

특히 전자상거래에 강점을 가진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 앤트파이낸셜의 존재감은 괄목할 만하다. BASIC(Blockchain, AI, Security, IoT, Computing) 기술을 보유한 앤트파이낸셜은 전 세계 최대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앤트파이낸셜의 킬러앱 알리페이는 중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각국의 주요 핀테크 파트너들과 협업하고 있다.

알리바바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앤트파이낸셜의 다양한 서비스(결제, 자산 관리, 파이낸싱, 보험, 신용) 중 복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는 2018년 8월 기준 6억4천만 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49% 성장한 수준이다. 참고로 앤트파이낸셜의 기업가치는 1,500억 달러(약 165조 원)로 이는 한국 4대 금융 지주의 시총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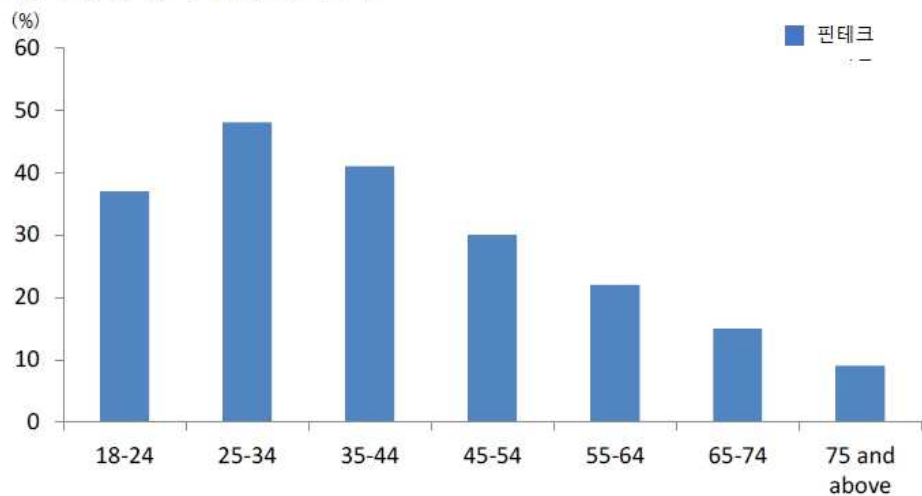
디지털에 친숙한 젊은 세대가 주력 경제활동 인구가 되면서 모바일의 은행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EY의 조사에 따르면, 나이 44세 이하의 평균 핀테크 도입률은 42%로, 이는 45세 이상 연령대의 평균 핀테크 도입률인 19%를 크게 초과한다.

이슈 리포트

이들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모바일로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세대이다. 주지하는 것은 모바일의 은행화 트렌드의 승자는 금융기업이 아니라 ICT 기업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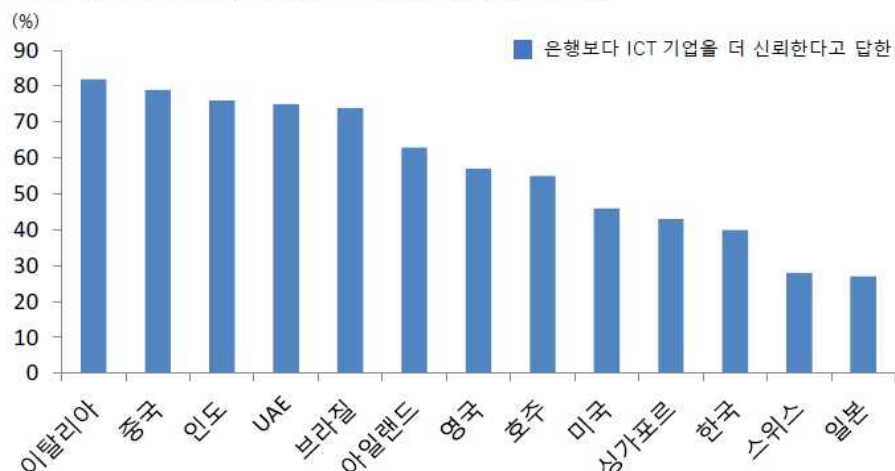
베인의 조사에 의하면, 은행보다 ICT 기업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의 수가 절대 적지 않다. 이들은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글로벌 ICT 기업들을 은행보다 더 신뢰하며, 해당 기업들이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충분히 이용할 의향이 있는 고객이다.

젊은 세대일수록 핀테크 친화적



출처: EY; 체인파트너스

국가별 은행보다 ICT 기업을 더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



출처: Bain; Research Now SSI

2.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테크핀 혁명

마원은 테크핀(Technology + Finance)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며 ICT 기업이 금융산업의 혁신을 주도할 것임을 예견했다. 핀테크와 테크핀이 모두 금융산업을 혁신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들의 차이는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가 금융기업인지 ICT 기업인지 여부이다. 다시 말해, 핀테크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ICT 서비스를 적용한 것이라면, 테크핀은 기존의 ICT 시스템에 금융서비스를 도입한 것이다.

핀테크 vs. 테크핀

	핀테크	테크핀
주체	금융 기업	ICT 기업
특징	은행 서비스를 모바일 앱으로 제공	모바일 유저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
고객	금융 고객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IT 기술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외주	자체 보유
데이터	금융 정보	비금융 정보
경쟁력	높은 신뢰도, 오랜 기간 쌓은 금융 노하우	IT 기술, 글로벌 고객 기반, 저비용
단점	고객 제한적, 고비용	금융 기업 대비 낮은 신뢰도, 소매금융에만 제한적

출처: 체인파트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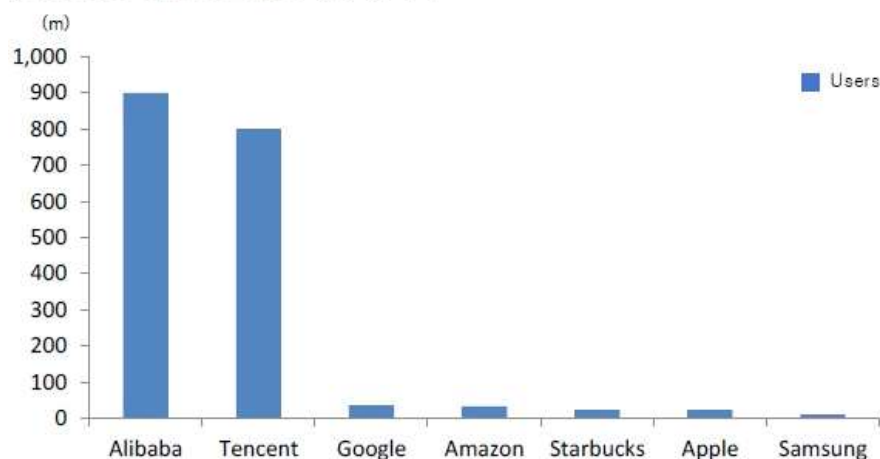
ICT 기업이 금융기업 대비 가진 강점은 비용, 유저, 데이터이다. 금융 기업이 점포 수를 줄이며 비대면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지만 애초에 비대면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ICT 기업만큼 비용을 줄이기는 어렵다. 게다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모바일 서비스(메신저, 검색 엔진, 전자상거래, SNS 등)를 제공하는 ICT 기업은 손쉽게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는 제한된 고객망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업들이 따라 하기 어려운 이점이다. 또한, 주로 금융정보에 기반을 둔 전통 신용평가

기법에 의존하는 금융기업들과는 달리 광범위한 비금융정보를 보유한 ICT 기업은 AI에 기반을 둔 정교한 신용평가 기법을 통해 틈새시장을 공략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중금리 대출이 대표적인 예이다.

인상적인 것은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와 비교 시 글로벌 ICT 기업들의 금융 사업이 그리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ICT 기업들의 모바일페이 유저 수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각각 9억 명과 8억 명 이상의 유저를 보유한 알리바바, 텐센트 대비 나머지 주요 글로벌 ICT 기업들의 모바일페이 유저 수는 수천만에 남짓하다.

간편결제에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이기 때문에 ICT 기업 입장에서는 모바일페이의 성공이 절실하다. 그러나 각 글로벌 ICT 기업들이 주력 분야에서 발휘하는 영향력 대비 이들이 확보한 모바일페이의 유저 수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글로벌 ICT 기업 별 모바일페이 유저 수



출처: 각 사 / 주석: 각사가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공표한 자료에 기반한 수치

중국을 제외한 ICT 기업들이 금융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기존에 깔려있는 금융 인프라가 장벽으로 작용하는 탓이 크다.

현 상황에서 ICT 기업들의 금융 사업 핵심이 되어야 할 모바일 페이의 사용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금이나 카드 사용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굳이 모바일 페이를 사용할 유인이 적을뿐더러 모바일 페이결제를 지원하지 않는 상점들도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ICT 기업이 금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통 금융권의 인프라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적과의 동침이다.

예를 들어, QR코드로 모바일 페이 시장을 개척한 알리바바나 텐센트와는 달리 다른 ICT 기업들은 카드 인프라를 활용하고 수수료를 지불한다. ICT 기업들은 간편결제에서 더 나아가 대출, 자산운용, 보험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싶어도 전통 금융권과 협력해야만 하는데, 금융 기업들이 순순히 파이를 내줄 리 없다. 기존 금융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는 금융기업들의 존재는 ICT 기업들이 금융 사업을 수익화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성가신 골칫거리다.

또한, 통화의 상이성 역시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ICT 기업들의 애로 사항이다.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금융 사업의 근간이 단일한 중국 위안화인 반면 글로벌 ICT 기업들은 다양한 통화를 취급한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는 전 세계 75개국에 매장을 두고 모바일 앱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예치금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를 수익화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스타벅스 플랫폼에서 다양한 통화를 통합해 관리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지역 규제뿐 아니라 환전비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면 이를 해결할 여지가 있다. 후술하겠지만 스타벅스가 Bakkt의 파트너로 참여해 비트코인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점 때문이다.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테크핀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화되면 그 동안

이슈 리포트

중국 경쟁사 대비 금융 사업이 미진했던 미국 ICT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주로 간편결제 및 송금에 국한되어있던 GAFA의 금융 사업 영역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면서 획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실제로 GAFA는 이러한 잠재력에 주목해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에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여 왔다.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ICT 기업들

기업	국가	간편결제	송금	대출	자산운용	보험	신용카드	신용평가	디지털자산
		✓	✓	X	X	X	✓	X	△
		✓	✓	✓	X	△	X	X	X
		✓	X	✓	X	✓	✓	X	X
		X	✓	✓	X	X	X	X	✓
		✓	✓	✓	X	X	✓	X	X
		✓	X	X	X	X	X	X	✓
		✓	X	X	X	X	X	X	X
		✓	✓	✓	✓	✓	X	✓	X
		✓	✓	✓	✓	✓	X	X	X

출처: 각 사, 체인파트너스 /
 주석: 디지털 자산은 아직 구체화된 서비스 없음.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테크핀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현재 미국의 금융기업과 ICT 기업은 활발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가장 주목해야 할 두 가지 네트워크는 바로 “스타벅스-인터컨티넨탈-익스체인지-마이크로소프트”와 “골드만삭스-애플”이다. 앞으로 금융기업과 ICT 기업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금융산업의 주도권이 글로벌 ICT 기업으로 넘어가면 소매금융의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로컬 은행들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위험이 있다.

3. 스타벅스가 꿈꾸는 비트코인 금융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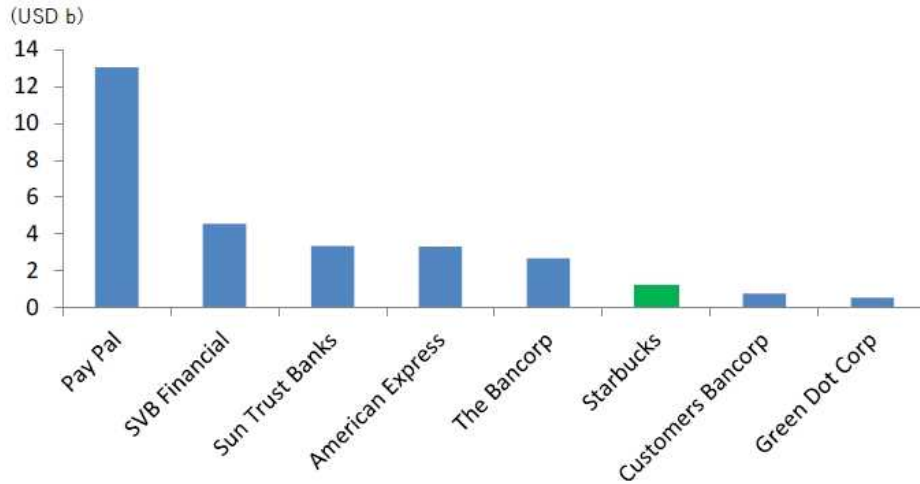
2018년 8월, 스타벅스가 뉴욕증권거래소를 보유한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의 Bakkt에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했을 때, 열성적인 크립토 지지자들은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며 흥분했다. “스타벅스가 비트코인 결제를 가능하게 하면 비트코인 사용이 활성화 될 것이다”라는 프레임은 여전히 지배적인 것 같다.

그러나 당사는 스타벅스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비트코인 결제가 아닌 비트코인 금융 플랫폼이라고 생각한다. 일반 은행들 대비 훨씬 저렴하고 빠른 해외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말이나 밤에도 영업하는 글로벌 비트코인 금융 플랫폼 말이다.

왜 ICE는 스타벅스를 리테일 파트너로 선택했을지 생각해 보자. 왜 맥도날드나 월마트가 아니고 하필 스타벅스일까. 그 답은 스타벅스 모바일 앱에 있다. 소비자들은 스타벅스가 주는 쿠폰과 편리한 서비스 때문에 스타벅스 앱을 이용한다. 스타벅스는 각종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로 하여금 자동충전을 유도하고 자주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충성도 높은 소비자들은 기꺼이 스타벅스 앱에 돈을 예치한다.

인상적인 점은 스타벅스 예치금의 규모이다. 월스트리트저널과 S&P 글로벌마켓 인텔리전스 조사에 의하면, 2016년 스타벅스의 예치금은 12억 달러(약 1.3조 원)로 이는 미국의 웬만한 중소 은행 예치금보다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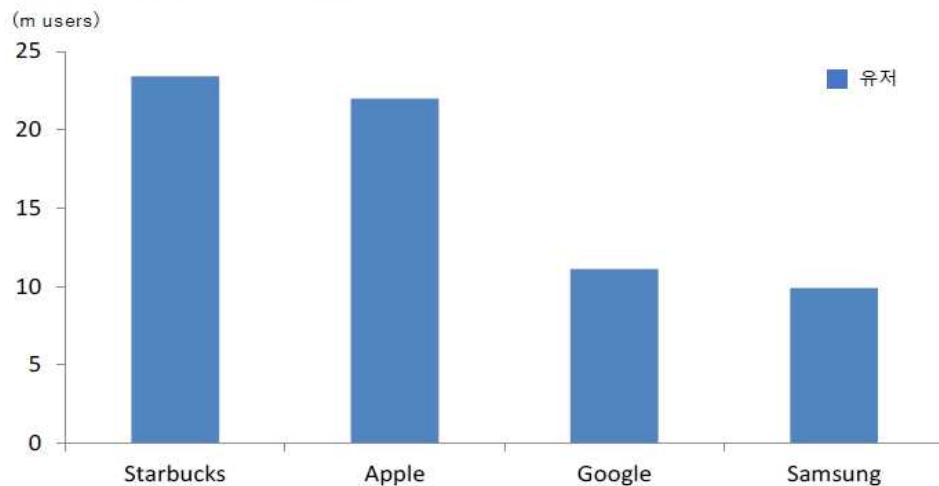
미국 내 기업별 예치금 규모 비교



출처: WSJ;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Starbucks

놀라운 것은 예치금뿐만이 아니다. 미국 내 가장 많은 유저 수를 보유한 모바일 페이 기업은 애플, 구글, 삼성이 아니라 스타벅스이다. eMarketer에 의하면, 작년 기준 미국 내 스타벅스 모바일 페이를 사용하는 유저 수는 2,340만으로 이는 구글페이와 삼성페이 유저 수의 2배 이상인 수치다.

미국 내 기업별 모바일 페이 유저 수



출처: eMarketer; 체인파트너스

전 세계에 지점이 있는 스타벅스는 다양한 통화로 쌓여있는 예치금을 어떻게든 활용하고 싶을 것이다. 로컬 은행들은 고객이 예치한 돈으로 대출을 해주면서 손쉽게 이자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글로벌 인프라를 갖추고 고객 예치금도 풍부한 스타벅스가 커피만 팔기는 아쉬울 테니 말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사의 예치금 데이터를 들여다보며 스타벅스 고위 경영자들은 어떻게든 은행 비즈니스를 도입해 이를 수익화시키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통화의 다양성 및 은행의 로컬화 경향은 스타벅스의 자본과 글로벌 인프라를 활용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한다. 이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정답은 비트코인이다.

앞서 강조했듯이, 전 세계 17억 명의 인구가 은행 계좌가 없고 이 중 2/3은 모바일을 가지고 있다. 인상적인 것은 은행 인프라가 낙후된 곳은 법정화폐 가치 또한 불안정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인기가 높다는 점이다. 중남미나 동남아 지역은 스타벅스의 타겟이 되기 너무 좋은 상황이다. 실제로 스타벅스는 2018년 10월 아르헨티나 현지 은행 Banco Galicia와 파트너를 맺고 스타벅스 은행 지점을 오픈했다. 참고로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중남미 지역은 비트코인에 대한 인기가 높기로 유명하다.

스타벅스가 Banco Galicia 와 파트너십을 맺고 오픈한 커피 은행



출처: Alurraldejasper

스타벅스가 성공적으로 글로벌 비트코인 금융 플랫폼이 된다면 저금리나 은행 인프라가 형편없는 국가의 고객들은 스타벅스 앱에 돈을 예치하려 들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정말 현실화되면 자본 규모와 글로벌 인프라 측면에서 스타벅스의 상대가 되지 않는 전 세계 수많은 로컬 은행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이는 국내 은행들도 마찬가지다.

만약 스타벅스가 은행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막대한 자본을 동원해 높은 이자를 제시한다면, 소비자들은 결국 글로벌 비트코인 은행인 스타벅스에 돈을 맡기고 스타벅스의 비트코인 예치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자본 규모가 충분한 수준으로 커지면 스타벅스는 은행뿐 아니라 대출, 자산 관리, 보험 등 디지털 자산에 특화된 각종 금융 사업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1월 스타벅스 창업자 하워드 숄츠가 뜬금없이 미국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선언한 것은 우연일까?

4. 애플이 골드만삭스를 금융 파트너로 선택한 이유

2019년 3월, 애플은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을 대대적으로 키울 것을 선포했다. 동영상, 뉴스, 게임과 더불어 눈에 띄는 것은 애플이 골드만삭스와 협업해 애플카드를 출시한다는 점이다. 애플카드는 캐쉬백 프로그램(애플 생태계 내 서비스 결제 3%, 애플 페이 결제 2%, 실물 신용카드 결제 1%)뿐 아니라 각종 신용카드 관련 비용을 낮추고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애플 카드고객은 문제가 생길 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바로 iMessage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애플카드는 애플과 골드만삭스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테크핀 전쟁에 출사표를 던졌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뉴스이다. 당사는 애플과 골드

만삭스가 아이폰을 ‘디지털 자산 금융 플랫폼’ 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애플과 골드만삭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공개한 애플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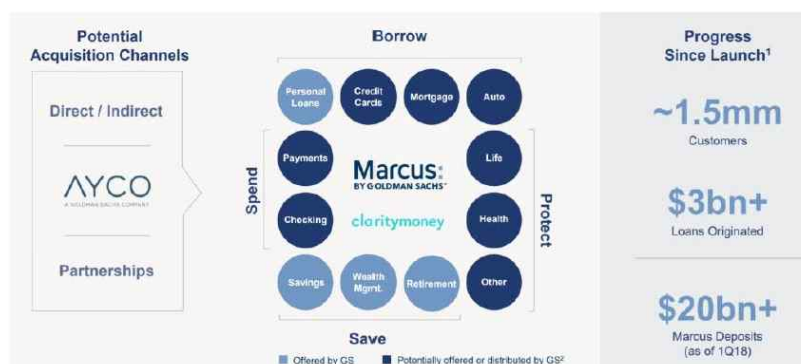


출처: 애플

애플과 골드만삭스가 협업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자.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골드만삭스는 리테일 사업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약 150년의 역사 동안 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사업을 했던 골드만삭스가 평범한 사람들을 상대로 리테일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2016년 골드만삭스는 창업자 Marcus Goldman의 이름을 딴 리테일 은행 Marcus를 미국에서 출시한 뒤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사명을 창업자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것은 그 만큼 회사 차원에서 리테일을 중요한 비즈니스로 생각한다는 뜻이다.

골드만삭스의 리테일 은행 Mar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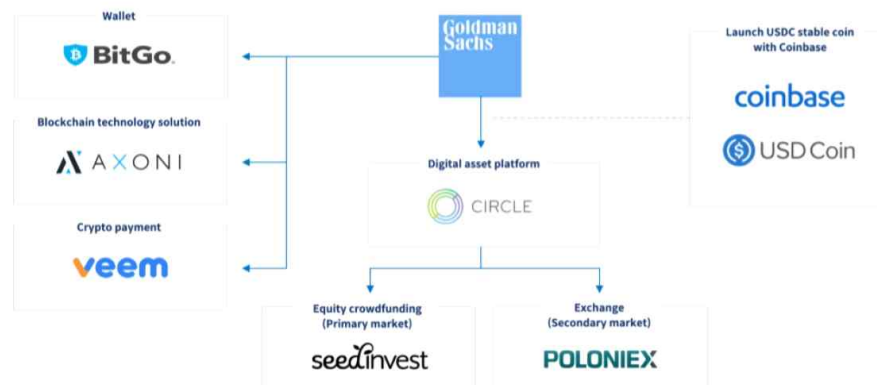
출처: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의 가장 큰 약점은 JP모건의 체이스은행과 같이 탄탄한 상업은행이 없기 때문에 리테일 고객 기반이 약하다는 것이다. 리테일 고객 기반이 약한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는, 많은 유저를 보유한 ICT 기업이 효과적으로 고객을 모집해주고 자사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준 뒤 파이를 나눈다면 이상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년 2억 개가 넘는 스마트폰을 팔고 충성도 높은 고객을 보유한 애플이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탐나는 파트너였을 것이다.

골드만삭스가 어떤 딜을 제시해서 애플을 파트너로 끌어들이었는지를 생각해보자. 왜 애플은 파트너로 리테일 금융 풋내기인 골드만삭스를 선택했을까? 왜 튼튼한 리테일 영업망을 갖춘 JP모건, BoA, 씨티가 아니고 하필 골드만삭스일까? 그 답은 바로 디지털 자산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골드만삭스는 씨클(디지털 자산 금융 플랫폼), 빗고(지갑), 액소니(기업용 블록체인 솔루션), 빔(비트코인 결제 및 송금) 등에 투자하면서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에 관해서 연구해왔다.

디지털 자산 스타트업에 활발히 투자하는 골드만삭스



출처: 체인파트너스

골드만삭스가 리테일 사업에 디지털 자산을 활용할 것이라는 점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골드만삭스가 2019년 2월 공개한 영상 “은행의 미래”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이 되겠다는 회사의 비전을 보여준다.

골드만삭스는 세 가지 미래 트렌드로 1)오프라인에서 온라인 बैं킹으로 전환 2)디지털 퍼스트 플랫폼 3)소비자 맞춤형 상품 서비스를 제시한다. 인상적인 것은 해당 영상에 “암호화폐 계좌” 문구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골드만삭스 “은행의 미래” 영상에 등장하는 암호화폐 계좌



출처: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가 애플을 설득할 때 미들맨의 개입이 거의 없는 디지털 자산의 장점을 어필했을 가능성이 크다. 2014년 애플 페이를 출시한 애플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금융기업 파트너, 통화의 상이성, 모바일 페이 시장 경쟁 심화 때문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금융 사업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배웠을 것이다. 애플이 금융 사업을 키우기 위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던 차에,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디지털 자산 솔루션은 분명 흥미로운 대안이었을 것이다.

당사는 골드만삭스가 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의 미래는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비트코인에 기반을 둔 솔루션일 확률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골드만삭스의 최대 경쟁사인 JP 모건이 이미 자체 스테이블 코인 JPM 코인 발행을 선언했기에 골드만삭스가 똑같은 방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은 그다지 혁신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결제 및 송금 스타트업

이슈 리포트

인 빔의 투자를 주도한 골드만삭스는 분명 비트코인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연구했을 것이다.

Marcus가 영국 은행들의 파이를 잠식했던 것처럼, 만약 골드만삭스가 경쟁적인 금리를 제시해 유저들로 하여금 비트코인을 아이폰에 예치하도록 유도한다면 어떨까? 충분한 규모의 비트코인 예치금이 쌓이게 되면 골드만삭스는 이를 기반으로 대출, 트레이딩, 운용 등에서의 장점을 살려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애플은 성장이 둔화한 스마트폰 시장에서 금융 관련 서비스 수익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OPINION

■ 혁신의 최전선에서 뛰는 모든 이들을 응원합니다

- 고 란 조인디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

혁신의 최전선에서 뛰는 모든 이들을 응원합니다

글_ 고 란 조인디 기자

“저희 메인 구경 한 번 와 주세요. 조금 재밌는 사업을 시작하고 메인
 을 개편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 잘 봐 주시고,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C거래소 지인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연락 없
 는 동안 뭐하나 했더니 ‘재밌는 사업’ 을 준비했더군요. 재밌는 사업은
 시쳇말로 ‘신박’ 했습니다. 이것은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거래
 소를 통한 암호화폐 자금조달)인가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인가.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규제의 울타리 밖에 있습니다.
 분명 ‘암호화폐 거래’ 라는 금융회사에서 일어나는 경제 활동인데도 암
 호화폐 거래소 사업자의 지위는 통신판매업자 등입니다. 금융당국은 거
 래소가 ‘규제를 받을 테니 지위를 인정해 달라’ 는 요구도 외면합니다.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 는 식의 마인드입니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게 정부가 국민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자칫 정부가 암호화폐를 인
 정한 것처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병리 현상과도 같았던 2017년
 말~2018년 초의 광풍이 불어닥칠까 봐 지레 겁먹은 겁니다.

국내에서 ICO(Initial Coin Offering)는 2017년 9월 말부터 금지됐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금지도 아닙니다. 금융당국이 방침을 발표한 이후 ICO
 와 관련한 어떤 법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니다. 현재는 가이드라인으로만
 ICO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 블록체인 프로젝트 대표에게 “위법도 아닌
 데 한번 해 보고 금융당국이 뭐라 하면 법원에서 물어봐라”라고 ‘펼프질’
 을 줌 했습니다. 법조문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반드시 이길 거라

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대표는 “기자님이 뭘 모른다”는 식으로 자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겨봐야 뭐합니까. 그 사이 회사는 이미 망했을 텐데.”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현실에서 ICO는 금지돼 있습니다. 이후로 2년 가까이 흘렀지만 관련된 규정은 역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프로젝트들은 ICO를 하지 않고 기관 대상 프라이빗 세일만 하거나, 여러 단점에도 해외에 재단을 세우고 ICO를 진행했습니다.

C거래소가 추진하는 방식은 뭔가 새로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ICO는 없었다’고 말해도 될 정도의, 새로운 방식의 ICO입니다. 클라우드펀딩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ICO를 제도권으로 끌어왔습니다.

ICO를 암호화폐공개, 혹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클라우드펀딩이라고도 풀이합니다. 자금모집 방법이 클라우드펀딩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차이로 보면 클라우드펀딩은 현금(법정화폐)으로 투자금을 받고, ICO는 암호화폐(비트코인·이더리움 등)로 투자금을 낸다는 점이죠.

클라우드펀딩은 엄연하게 법의 울타리 안에 있는 합법적인 자금모집 방법입니다. 곧, 클라우드펀딩 업체를 통하면 ICO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C거래소의 역할은 뭐냐고요? 해당 프로젝트가 과연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도 괜찮은 정도인지를 점검합니다. C거래소는 설립 초기부터 리서치 센터를 운영했습니다. C거래소는 거래소 상장 심사와 비슷한 수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쳤다고 강조합니다. 그런 엄격한 심사를 통하는 경우에만 클라우드펀딩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흘 뒤, 커뮤니티 카카오톡 방에서 이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C거래소가

클라우드펀딩을 취소했다는 내용의 공지를 홈페이지 올렸다고요. 홈페이지 들어가 확인해 보니 정말 취소했습니다. C거래소 지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물었습니다. 이런 답이 왔습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한국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이다. 이런 환경에서도 이런 기업과 사업을 만들어 내다니”라고 하셨는데... 제가 혁신이 부족했나 봅니다.’

이 답과 홈페이지 공지가 담고 있는 내용의 의미를 마음대로 해석한 후, 아래와 같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보기엔 조금 나이브(naive) 하신 것 같네요. 투자자들은 거래소가 클라우드펀딩을 진행하니 자금모집 후 당연히 거래소 상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를 간과한 게 아닌가 싶네요.’

저는 이것이 C거래소 클라우드펀딩 프로젝트의 핵심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C거래소가 스타트업이다 보니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한 건 아닌지, 국내 투자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건 아닌지... 잠시 후 놀랄만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정도 생각 안 했을 사람이였을까요. 그냥, 이 나라는 역시 안 되겠구나...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궁금해 하는데 잠시 후 다른 매체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클라우드펀딩 업체 측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암묵적인 압력을 행사했다고. 그리고 그 압력을 견디다 못한 클라우드펀딩 업체가 C거래소에 펀딩 취소를 요청했다고요. 자칫 ICO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우려였습니다.

아, 제가 나이브 했습니다. 규제 리스크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업체가 당연히 규제의 울타리 안에 있으니, 규제 사각지대와 관련한 문제는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업체가 아니라 암호화폐거래소가 문제였습니다. 금융당국은 2017년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와 관련한 그 어떤 활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사정을 알고 나선 지인이 걱정됐습니다. 잘나가는 외국계 금융회사에 다니다 가능성만 믿고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규제의 장벽에 막혀 혹여나 이 판을 떠날까 걱정됐습니다. 산업이 크려면 인재가 들어와야 합니다. 있는 인재마저 나가는 산업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나름의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얼마 후 이런 답이 왔습니다.

‘전의 상실한 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지난 두어 달 동안 밤낮없이 주말 반납하고 일해서 좀 피곤한 만큼 일주일 정도 폭 쉬고, 다음 사업 아이템도 구상해놓은 게 있으니 또 달리면 됩니다. :D’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건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혁신의 최전선에서 뛰는 모든 이들을 응원합니다. 혹여나 지치지 않도록, 옆에 있겠습니다.



고 란

-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Join:D)CCO
- ‘고란의 어쩌다 투자’ 칼럼 연재
- 유튜브 ‘고란TV’
- 〈넥스트 메나〉(2018) 공저

국내 정책 및 산업 동향

[2019. 4월]

한국블록체인협회

■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우선심사 대상에 블록체인 포함

- 1일 IT 전문미디어 지디넷 코리아(ZDNet Korea)에 따르면, 금융혁신 지원특별법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금융규제 샌드박스)가 2019년 1월 말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심사를 신청한 105건 중 19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4월 내 처리할 예정이라 밝힘
- 이번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 심사 대상에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을 접목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포함되었으며,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샌드박스의 모든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연중 중단없이 신청 수요에 상시 대응하겠다”며 “새로운 기술과 사업에 적극적인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고, 단계적 테스트 등을 통해 가급적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힘

■ 버닝썬 게이트 린사모, 암호화폐 작전으로 자금조달 의혹

- 1일 MBC가 버닝썬 게이트 연루 관계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타이완 여성 린사모가 대규모 자금을 암호화폐거래소 작전으로 조달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보도함
- 미디어에 따르면 린사모는 국내 부동산에 최소 300억 원을 투자한 뒤, 관세청에 1원도 반입신고를 하지 않았음. 이와 관련해 린사모의 지인은 국내 소형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작은 암호화폐를 골라 뺏튀기한 뒤 순식간에 팔고 나오는 이른바 ‘작전’을 썼다고 제보한 것으로 나타남
- 경찰은 린사모의 금고지기 안 모 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투자금 조성 경위를 조사하고 있음

■ KISA “빗썸, 외부 해킹 가능성 완전 배제 불가”

- 1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비정상적 출금’ 관련 외부 해킹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함

- 이와 관련 KISA 고위 관계자는 오늘 헤럴드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빗썸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최초 확인했을 때 당장 원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은 나오지 않았고, 외부 침입 흔적도 발견되지는 않았다”며 “빗썸 측에서는 내부자 소행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재 드러난 상황만 갖고는 외부 해킹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함
- 이 관계자는 “빗썸 측으로부터 확보한 데이터와 기록이 방대해 이를 채취하고 분석하는데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당장 빗썸 내부자 소행 탓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부연함

■ 빗썸, 암호화폐 입금 서비스 중단...고객 자산 실사

- 2일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이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의 안내가 있기 전까지 입금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고객 자산 실사가 완료된 후 입금 서비스 재개 시까지 입금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함
- 빗썸은 지난 3월 29일 “내부횡령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인해 비정상 출금된 암호화폐는 모두 회사 소유분이며, 회원 자산은 콜드월렛에 안전하게 보관돼있다”라고 밝힌 바 있어 이에 따라 회계법인을 통한 고객 자산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KISA 및 경찰에 강도 높은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함
- 다만, 이번 사고와 관련이 없는 신규 상장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입출금 서비스는 별개로 진행될 것이며, 농협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번호를 통한 원화(KRW) 입출금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임

■ 아시아 최대 재보험사 오너 일가, 암호화폐 사기 의혹

- 2일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아시아 최대 재보험사 코리안리 오너 일

- 가 인사가 암호화폐 도박 및 판매 사기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나타남
- 미디어에 따르면 코리안리의 최대주주로 이사회 의장을 지낸 故 원혁 회장의 손자이자 원종규 현 코리안리 대표이사의 조카 원 아무개 (34)씨는 2018년 5월 암호화폐인 임페리얼스타코인 한국 대표를 맡을 당시 SNS에 “(임페리얼스타코인이) OKEX, KUcoin, ZB 등에 상장할 것이며 향후 전 세계 20여 개 주요 거래소에 상장한다. 현재 약 2,000억 원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고 말하였으나, 어느 거래소에도 상장되지 않았음
 - 원씨는 ‘코인데스크 코리아’와 한 통화에서 “임페리얼스타코인은 카지노를 위한 코인이 맞지만, 한국에서 모금된 금액은 수십억 원에 불과하고 대부분 중국에서 투자금을 유치했다”며 “거래소 상장은 현재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시기를 두고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원씨가 2018년 9월 설립한 암호화폐 투자사 알파랩스는 암호화폐 판매 사기 의혹도 받고 있음
 - 투자자들이 검찰과 경찰에 접수한 고소장을 보면, 알파랩스는 2018년 9월부터 최근까지 네이버 라인의 링크, 카카오의 클레이튼 등 암호화폐 구입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았지만 약속한 암호화폐를 전달하지도, 투자금을 돌려주지도 않고 있음
 - 일부 투자자들이 밝힌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토대로 2018년 9~12월 기간만 살펴보면 투자금은 당시 시세로 최소 37억 원에 이름

■ NH농협은행, ‘P2P 금융증서 블록체인 서비스’ 은행권 최초 출시

-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이 P2P 금융 투자자의 원리금 수취권 증서를 농협은행 NH 스마트고지서로 제공하는 ‘P2P 금융증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출시했다고 밝힘

- 해당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원리금 수취권의 조작·변경을 막고, 금융보안 클라우드를 거쳐 투자자에게 NH 스마트고지서로 내용을 제공한다는 게 해당 미디어 측의 설명이다. 농협은행은 해당 서비스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 기반의 원리금 수취증서 제공 방법’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블록체인, ‘샌드박스’ 통해 육성...암호화폐 제도화는 아직”

- 3일 뉴스 토마토에 따르면,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이하 4차 특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법무부 등 주요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하였다고 밝힘
-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해 네거티브 형식으로 정책을 유연화하겠다는 태도를 밝히면서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해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하겠다는 견해를 재확인함
- 최창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블록체인 원천기술은 육성하되, 암호화폐 투기과열 방지와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에 엄정히 대처하겠다. 블록체인은 공공시범 사업 확대, 기술개발 지원 등 블록체인 발전 전략을 지속 추진해 블록체인 기술 기업을 육성하고 인력을 적극 양성하겠다. 다만 ICO는 투자위험이 크고 국제적 규율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화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암호화폐 관련 우선 자금세탁방지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함

■ 비탈릭·루비니, 암호화폐 익명성 두고 대립...가치 거품 지적에는 동의

- 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한 ‘디코노미(분산경제포럼)’에서 대표적인 비트코인 회의론자 ‘닥터 둠’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가

“암호화폐 익명성이 장점으로 부각되지만 탈세자, 범죄자만이 익명성을 필요로 한다. 비트코인이 완벽한 익명 코인이었다면 어떤 나라에서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실제 암호화폐는 횡령, 탈세, 테러, 인신매매 등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함

- 이에 대해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문제의 본질은 암호화폐에 있지 않다. 기존 시스템하에서 많은 정보가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진짜 문제”라며 “암호화폐의 익명성은 사회 자율성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함
- 루비니 교수는 “지난해 암호화폐의 98%가 사라졌고 많은 사람이 손해를 입었고, 이는 단 1년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함
- 이에 부테린은 “암호화폐 가치에 거품이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암호화폐 안정성이 확보되면 경제가치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함

■ 금감원, 블록체인 규제 프레임 마련...산업 활성화 도모

- 6일 파이낸스 투데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규제 샌드박스에 적용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블록체인 산업 규제 프레임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힘
- 이와 관련해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육성 및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글로벌 컨소시엄 등과 협력, 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 등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규제 프레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시범사업 본격 착수

-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2019년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사업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힘

- 올해 진행될 시범사업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서비스 플랫폼 구축(식품의약품안전처) ▲블록체인을 적용한 신뢰 기반 기록관리 플랫폼 구축(국가기록원) ▲전기차 폐배터리 유통 이력 관리시스템 구축(제주특별자치도) ▲탄소배출권 이력관리시스템 구축(환경부) 등이 중점적으로 시행될 계획임

■ 부산항만공사, 블록체인 기반 환적화물 운송 시스템 구축

-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가 오는 5월부터 블록체인 기반 환적화물 운송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밝힘
- 선사, 운송사, 컨테이너터미널 등 항만물류 관련 5개 업체가 블록체인을 통해 하루 30~80개 컨테이너 운송을 주문하고, 트레일러 기사가 스마트폰 앱으로 이를 확인해 부두 간 수송하는 방식으로, 트레일러 대기시간 감축은 물론 신고간 컨테이너를 내린 뒤 다른 컨테이너를 신고 나오는 복화술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힘

■ 삼성 SDS, 인도 테크 마힌드라와 블록체인 해외사업 협약 체결

- 14일 서울파이낸스에 따르면, 삼성SDS가 기업형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NexledgerTM)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전 세계 900여 기업에 IT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기업 인도 테크 마힌드라(Tech Mahindra)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삼성SDS는 테크 마힌드라사와 공동으로 인도, 미국, 유럽에서 블록체인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넥스레저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협력할 계획임

■ 삼성 SDS,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 유니버설’ 출시

- 24일 뉴스원에 따르면, 삼성SDS가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의 차기 버전인 ‘넥스레저 유니버설’을 출시했다고 밝힘
- 넥스레저 유니버설은 삼성SDS가 자체 개발한 분산합의 기술인 ‘넥스레저 컨센서스 알고리즘(NCA)’과 범용 블록체인 기술인 ‘하이퍼레저 패브릭’, ‘이더리움’에 공통으로 적용이 가능한 표준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임
- 이를 통해 개발자는 사용자인증, 지급결제, 원본증명 등의 응용 서비스를 이 중 한 가지 기술로만 개발해도 다른 2개 기술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삼성SDS 측의 설명이며, 홍혜진 삼성SDS 블록체인 센터장은 “다른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도 넥스레저 유니버설을 추가로 등재해 클라우드 기반의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함

■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 대상에 선정

-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시가 2019년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우선협상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힘
- 부산시가 제출한 블록체인 특구는 모두 13개 사업으로 금융, 물류, 빅데이터, 스마트계약 등과 같은 분야에는 부산은행을 비롯해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현대페이 등도 참여함

■ 영국 싱크탱크 “북한, 최대 8천억 원대 암호화폐 보유”

- 16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라이브 비트코인뉴스가 영국의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 “북한 해커들의 소행으로 지목돼온 한국·미국·일본·영국 등 각국의 암호화폐 탈취사건 피해액을 종합했을 때 그 가치가 미 달러화 환산 기준으로 최대 5억

4,500만~7억 3,500만 달러(약6,190억~8,350억 원)상당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함

- RUSI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 등 국제사회의 경제·금융제재가 강화된 지난 2017년부터 그 우회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북한이 그동안 해킹을 통해 탈취한 암호화폐가 실제 달러화 등으로 환전됐는지는 불확실하다는 것이 RUSI 측의 분석임

■ KT, 세계 최초 5G 네트워크에 블록체인 적용

- 16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KT가 5G 네트워크에 적용한 블록체인 기술로 커넥티드카, 스마트팩토리 등 사물인터넷(IoT) 시장 보안 이슈를 해결하겠다고 밝힘
- KT는 세계 최초 5G 네트워크 블록체인 ‘기가 체인(GiGA Chain)’을 공개하고, 독자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IoT 보안 솔루션 ‘기가스텔스(GiGAstealth)’를 선보였으며,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 화폐 플랫폼 ‘착한페이’도 공개함
 - ※ 기가스텔스(GiGAstealth) : 신원이 검증된 송신자에게만 IoT 단말의 IP주소가 보이는 ‘Invisible(무형의)IP’ 기술로, 기가 체인을 통해 사용자, 서버, IoT 단말 등 통신에 관련된 모든 요소들에 대한 고유 IP를 저장하며, 스마트 컨트랙트로 1회용 상호인증 접속 토큰을 발행해 IP가 아닌 ID 기반의 통신 무결성을 보장함
 - ※ 착한페이 : 모바일 앱 기반의 상품권 발행 및 QR 결제시스템으로, 사용 이력 추적을 통해 불법 현금화 문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음
- 현재 KT는 김포시에서 유통되는 110억 원 규모의 김포 페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울산시, 하동군, 남해군 등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지역 화폐 플랫폼을 확대할 계획임

■ 코인네스트, 폐업 결정

-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네스트가 16일 오후 6시 30분 홈페이지를 통해 암호화폐거래소 서비스 운영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고 공지함
- 코인네스트는 거래소 폐쇄 배경에 대해 “현시점에서 측정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업계가 보여주는 변화와 움직임은 지금까지의 코인네스트 철학과 열정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설명함

■ 금융위, 블록체인 ‘P2P 주식대차’ 샌드박스에 포함

- KBS에 따르면, 17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할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으며, 그 중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 방식 주식 대차’ 중개 플랫폼이 포함되었다고 밝힘

※ P2P 방식 주식 대차 :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개인투자자에게 주식대차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

■ ‘삼성코인’ 나오나? “삼성전자 블록체인 메인넷 개발 중”

- 24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메인넷을 개발 중이며, 메인넷 개발이 완료되면 자체 암호화폐 ‘삼성코인’ 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밝힘
- 미디어는 소식통을 인용,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산하 블록체인TF가 블록체인 메인넷을 개발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내부 테스트를 진행해 이미 돌아가고 있는 모델들이 있다고 설명함
- 미디어에 따르면 갤럭시 S10 암호화폐 지갑도 이더리움 기반 ERC-20 토큰을 지원하고, 소식통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 B2B 모델을 생각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향후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갈 수도 있지만 당장은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혼합한 하이브리드식으로 갈 것 같다”고 전함

- 미디어는 “만약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면 여기서 발행되는 ‘삼성코인’을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할 수도 있다”면서도 “국내 규제 상황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암호화폐를 발행한다면 사전 인증된 제휴사들만 참여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내다봄

■ 현대오트모에버,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개발 추진

- 25일 아웃소싱타임즈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의 ICT 전문기업인 현대오트모에버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자회사인 람다256, 블록체인 플랫폼 전문업체인 블로코와 협력하여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사업 전개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힘
- 이를 통해 3사는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을 포함, 자동차 산업 내 다양한 사업을 공동 개발 및 추진해 기업용 블록체인 산업에 진출한다는 것. 현대오트모에버는 BaaS(Blockchain-as-a-Service) 플랫폼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쉽고 빠르게 비즈니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토탈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임

■ 금융위원장 “가상통화 규제, 초국가적 협력 필요”

-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가상통화(암호화폐·가상화폐)를 규제하려면 국가를 넘어선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함
-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마련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에 맞춰 각 국가가 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해외 정책 및 산업동향

[2019. 4월]

- 미국
- 영국
- 스위스
- 프랑스
- 중국
- 일본
- 기타

한국블록체인협회

미 국

■ 미국 SEC 위원 “미국 규제 당국, 암호화폐 핵심 못 짚어”

- 1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에 따르면, ‘크립토 맘(Crypto mom)’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미국 SEC가 암호화폐 ETF 승인신청을 거절하는 이유는 암호화폐의 잠재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그들은 암호화폐의 핵심을 짚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 그러면서도 그는 “일반적으로 정부 기관은 혁신에 대해 보수적인 경향이 많아 SEC의 ETF 승인 반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덧붙임

■ 미국 SEC, 증권형 토큰 법률 전문가 채용

- 1일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형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 채용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전문가는 향후 미국 연방 증권법의 증권형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적용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는 게 미디어의 설명
- 코인텔레그래프 역시 SEC가 공공 구인·구직 플랫폼 USA잡을 통해 거래 및 마켓(TM) 부서의 암호화폐 담당 법률 전문가를 채용하는 공고를 냈다고 보도하였으며, 이들은 향후 기존 SEC 법률 부서와 함께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증권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페이팔, 블록체인 업체 첫 투자

- 2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글로벌 전자결제 회사인 페이팔(Paypal)이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관리 업체 ‘케임브리지

블록체인' (Cambridge Blockchain)의 시리즈 A투자에 참여했다고 발표함

- 이는페이팔이 블록체인 관련 업체에 투자를 나선 첫 사례로 정확한 투자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SEC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케임브리지 블록체인은 지난 9개월 동안 총 350만 달러(약 40억 원)를 조달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광산업체, 블록체인 도입 및 증권형 토큰 발행 추진

- 3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광산 채굴 업체 블루 힐 마이닝(Blue Hill Mining)이 채굴 과정에 블록체인을 도입해 단계별 투명한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해당 데이터에는 원자재 채굴지점, 운송 방법, 원자재 구매 적법성 등이 표기된다. 또한, 블루 힐 마이닝은 블루 힐 파운데이션(Blue Hill Foundation)과 함께 증권형 토큰인 BHM을 발행, 오는 2020년 초까지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시킬 계획임
- 2020년 말까지는 블록체인 기술을 전면 활용해 평균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원자재를 구매한다는 방침임

■ 미국 SEC, 현지 발행 토큰에 증권법 대상 예외 결정...사상 처음

- 4일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항공 서비스 제공업체 턴키 젯(Turnkey Jet)이 발행한 토큰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는다는 비조치 의견(no-action letter)을 발송함
- 이는 해당 업체가 발행한 토큰이 증권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 해당 토큰으로 조달한 자금은 개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토큰은 즉시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됨

- SEC는 해당 토큰이 여행 서비스 용도로 국한되어야 하며, 향후 해당 토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홍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고, SEC는 TKJ 토큰 이체가 오직 TKJ 월렛으로만 가능하며 외부 플랫폼 월렛으로의 유출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 토큰 양도에 명확한 제한을 두었음

■ CFTC 의장 “업계 제도화 노력 지속, BTC 선물 등 업계 성장에 긍정적”

- 6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 거래위원회(CFTC)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J. Christopher Giancarlo) 의장이 최근 유로피(Eurofi) 포럼에서 “CFTC는 제도화된 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과도한 규제에 암호화 자산 발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함
- 그러면서 그는 “CFTC는 권력을 행사해 업계 발전을 저해하길 원하지 않는다. 시장 발전 현황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비트코인 선물 등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을 지켜 보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금융상품은 비트코인의 적정 시장 가격 설정 등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이미 증명해 보였다”고 말함

■ GM · BMW, 자율주행차 데이터 공유 블록체인 기술 지원

- 8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제너럴모터스(GM)와 BMW가 자동차 제조사 간 자율주행차 관련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지원 중이며, 분산원장기술(DLT)을 자동차 업계에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구성된 컨소시엄 MOBI(Mobility Open Blockchain Initiative)의 지원을 받았다고 설명함

■ 로이터, 블록체인 기반 신원정보 관리 특허 취득

- 8일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세계적인 금융정보 및 뉴스 제공업체 톰슨 로이터가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 관리시스템 관련 특허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남
- 해당 특허는 2015년 12월 22일 신청되었으며, 신원정보 데이터를 토 큰화해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기술을 골자로 함

■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 법원, AML 위반 BTC 트레이더에 징역형

- 9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지방검찰청의 공지를 인용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 법원이 자금세탁방지(AML)규정을 위반하고 1,000여 명의 구매자들에게 BTC를 판매한 혐의로 제이콥 버렐 캄포스(Jacob Burrell Campos)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함
- 앞서 버렐은 P2P 플랫폼에서 비트코인을 판매해 82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으며, 이 과정에서 AML 과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게 캘리포니아주 주 법원 측의 설명임

■ 미국 미시건주 하원, 형법에 암호화폐 포함기로

- 10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미시건주 하원이 암호화폐를 형법에 포함하는 개정안(hb4102)을 통과시켰다고 밝힘
- 이는 자금세탁, 횡령, 신용카드 사기 등 금융이익 불법 행위 전반에 관한 형법(Michigan criminal Code)으로 미시간주 하원이 찬성 108표, 반대 1표로 통과시킨 이 법안은 미시간주 상원 심의 절차로 넘어가게 됨

■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결제 Visa 체크카드 출시

- 11일 미국계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는 Visa 체크카드 ‘코인베이스 카드(Coinbase Card)’를 출시했다고 전함
- 영국과 EU 사용자들은 그들의 코인베이스 계정에 있는 잔액을 해당 체크카드를 사용해 바로 결제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임

■ JP모건 회장 “JPM 코인, 달러 예금 기반...실체 없는 코인과 달라”

- 10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에 따르면,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 JP모건 회장이 미국 주요 은행들의 CEO들이 참석한 하원 금융위원회(FSC)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에 대한 견해를 밝힘
- 그는 ‘왜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암호화폐가 실체가 없다는 발언은 해당 자산 가치가 어떠한 기반도 없이 오로지 다음 사람이 얼마만큼 그 가치를 인정하느냐에 달렸다는 사실에 근거한다”며 “JPM 코인은 JP모건의 달러 예금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함

■ 블룸버그 “IEO리스크 여전...규제 강화 전망은 시기상조”

- 11일 미국 경제지 블룸버그가 온라인 칼럼을 통해 “최근 거래소공개(IEO)가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투자자 사기 리스크가 크다”라며 “규제 기관이 IEO에 대해 ICO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진단함
- 이와 관련 과거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ICO 분야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증권 변호사 Zach Fallon는 “IEO는 ICO의 또 다른 버전

으로, 시장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거래소 토큰 결제 강요는 결과적으로 IEO에 대한 당국의 경계를 높이게 될 것”이라며 “IEO 토큰은 거래소에 즉시 상장돼 유통되기 때문에 SEC가 증권으로 간주할 가능성도 더욱 크다”고 경고함

- 글로벌 투자사 아르카펀드(Arca Funds)의 협력 파트너 Jeff Dorman은 “최근 BNB 등 거래소 토큰의 높은 가격 상승세는 IEO에 대한 투자자 기대를 반영한다. 투자자들은 IEO에 높은 기대를 품고 있으며 리스크는 개의치 않는다”고 말함
- 유럽 암호화폐거래소 비트스탬프(Bitstamp)의 Nejc Kofric CEO는 “시장 관리 감독 시스템이 아직 미숙하지만, 여전히 많은 거래소가 IEO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장기측면에서 더욱 체계화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우선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함

■ 골드만삭스 회장 “암호화폐거래소 설립 계획 없다”

- 12일 중국 경제 미디어 시나 파이낸스(Sina Finance)에 따르면,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회장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암호화폐 거래 부서를 신설한 이유’에 대해 “우리는 대다수 기업과 같이 암호화폐 시장을 관망하며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골드만삭스 고객 중 일부는 관련 선물 투자를 하고 있으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개설할 계획은 없다”고 밝힘
- 그러면서 그는 “향후 관련 업무를 진행할 가능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암호화폐가 화폐로써 작용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임

■ 외신 “우버 IPO 신청, 암호화폐 최대 수혜 업종 전망”

- 14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우버(Uber)의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공개(IPO) 서류 제출 소식 이후 업계 일

각에서 암호화폐가 주요 수혜 업종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함

- 우버는 현재 전 세계 63개 국가 40억 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버의 암호화폐 결제 도입 여부는 아직 구체화 된 게 없지만, 일부 국가 우버 운전자를 중심으로 비트코인 결제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의견임
- 실제 최근 아르헨티나에서는 가치가 급락한 페소보다는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겠다는 의견이 일부 우버 운전자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미디어는 전하면서, 이와 관련 암호화폐 벤처투자업체 디지털 커런시 그룹(Digital Currency Group) 배리 실버트(Barry Silbert) CEO는 해당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우버 등 첨단 기업 IPO가 본격화되면 암호화폐 산업이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강조함

■ 트럼프 대통령 송금세제안, 암호화폐 보급 촉진 전망

- 17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이더리움 월드뉴스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송금세(remittance tax) 징수 의사를 밝힌 이후 업계 일각에서 비트코인 도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전망을 밝힘
- 블록체인 데이터 전문업체 코인댄스(CoinDance)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송금세 징수 의사를 밝힌 이후 해외 송금 관련 P2P 거래 플랫폼 거래량이 소폭 증가하였다고 밝힘

■ 블룸버그 “CFTC 백트 출시 승인, 비트라이센스 획득이 관전”

- 18일 블룸버그 통신이 제보자를 인용,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뉴욕증권거래소의 모기업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ICE) 산하 암호화폐거래소 백트(Bakkt) 출시 승인을 미룬 것은 ‘고객 암호 화폐를 안

전하게 보관하는 데 대한 우려’ 라고 전함

- 블룸버그는 세 명의 제보자를 인용 “ICE는 뉴욕주 금융감독국(NYDFS)의 비트라이선스(BitLicense)신청을 고려하고 있으며, 해당 라이선스 획득 시 고객의 토큰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며 “CFTC는 주 라이선스를 인정하기 때문에, ICE가 자체 인증 절차를 거쳐 선물을 상장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임

■ CFTC 위원장 “백트 출시 지연, 암호화폐 보관 문제 결정적”

- 23일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미국 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거래소 백트(Bakkt)의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선물거래소가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미국의 법률을 고려할 때 고객 자산의 보관은 제도권의 규제를 받는 신탁기관 혹은 은행이 이뤄내야 한다” 고 지적함
- 반면 백트는 스스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모기업(intercontinental Stock Exchange, 뉴욕증권거래소의 운영사) 청산소를 통해 결제를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미국 파생상품 규제를 보면, 거래소, 파생상품, 청산소 등은 주 정부의 관리하에 운영될 수 있지만, 통상 현금과 같은 금융상품 실물을 보유하는 기업들은 주로 주 법안 또는 국가 헌장에 따른 은행 또는 신탁기관을 통해 운영됐다”라고 부연함
- 미디어는 이에 대해 “백트는 자체 디지털웨어 하우스를 통해 비트코인을 보관할 예정이었으나, 모기업인 ICE가 은행이나 국가가 규제하는 스터디 혹은 신탁사업자가 아니므로 당국에 이 부분에 대한 면제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함

■ 보고서 “미 정부 블록체인 투자, 2022년 10배로 확대”

- 18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IDC Government Insights 연구기관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연방정부가 2022년까지 블록체인에 1억 235만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2017년 1,070만 달러 대비 1,000% 증가한 수치”라고 전함
- 해당 보고서는 또 “지방 정부의 블록체인 지출 또한 2017년 440만 달러에서 2022년 4,820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와 관련해 IDC 연구그룹 디렉터 쉐awn 맥카시(Shawn McCarthy)는 “자산 관리, 신원 관리, 스마트계약이 정부의 주요 블록체인 솔루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정부의 블록체인 투자는 초기 공급망 및 자산 관리 솔루션에서 신분 관리, 복잡한 금융 거래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관측함

■ 뉴욕 당국, 비트렉스 라이선스 불허 이유 설명...북한·이란 계좌 발견도

- 19일 뉴욕 금융감독청(DFS) 산하 은행 서비스 감독 부서 부책임자인 시린 에마미(Shirin Emami)가 미디어 코인데스크를 통해 ‘비트렉스(Bittrex)가 뉴욕주의 비트라이선스를 발급받지 못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힘
- ① 중장기적인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및 이와 관련된 개선 명령 불이행, ② 부족한 고객 신원 인증 시스템 : DFS 모니터링 결과 가짜 계정의 70%가 활성화/샘플 계정의 39%가 신분 확인 불가/샘플 계정 내 각각 2개의 북한 계좌 및 이란 계좌 확인, ③ 무분별한 상장 : 체계적인 시스템 없이 비공식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상장 결정
- 시린 에마미 부 책임자는 이와 관련해 “당국이 비트렉스의 라이선스 신청을 무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국은 규제 요구 사항과 개선점을 재차 강조했으며 개선의 여지를 주었으나 비트렉스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함

■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암호화폐 정책 성명 발표

- 19일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2020년 미국 대선 민주당 측 후보 중 한 명인 앤드류 양(Andrew Yang)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책 성명을 발표함
- 그는 “암호화폐를 어떻게 취급하고 규제할지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시기”라며 “토큰의 정의, 토큰의 증권법 적용, 암호화폐 판매 및 거래에 대한 과세, 당국의 규제 권한 등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현재 미국의 각 주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상반된 규제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같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의 해당 분야 투자가 다른 국가보다 뒤처질 수 있다”고 지적함

■ 폭스바겐, IBM 지원 코발트 추적 블록체인 프로젝트 참여

- 19일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이 IBM이 지원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코발트 공급망 추적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기반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코발트의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공급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
- 현재 해당 프로젝트에는 자동차 회사 포드, 한국의 LG화학, 중국의 화유코발트(Huayou Cobalt)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인 RCS글로벌(RCS Global)도 모니터링에 참여함

■ 미국 SEC, 사기성 암호화폐 업체 투자자 주의 경고

- 25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사기성이 의심되는 암호화폐 업체에 대한 투자자 주의를 경고하였다고 밝힘

- 두 기관은 경고문을 통해 “최근 디지털 자산 혹은 암호화폐 자문 및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하는 일부 불법 암호화폐 업체를 적발함. 이들은 고객 자금을 특정 암호화폐 시스템 혹은 채굴장에 투자할 수 있으며 최소 20%에서 최대 50%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였으며 어떠한 투자 리스크도 없다고 광고했다”라고 경고함
- 또한, 무허가 혹은 미등록된 업체가 추진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으며, 투자 시 Investor.gov 홈페이지를 참고,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 조언을 받을 것을 권고함

■ 나이키 암호화폐 관련 상표 출원...자체 토큰 활용 검토

- 25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block.com이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크립토킱스’ (Cryptokicks) 상표 출원을 신청하였고, 상표 등록이 허가되면 나이키는 자체 상품에서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힘
- 나이키 측은 해당 상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자사 온라인 마켓 내 디지털 화폐 활용방안을 함께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 Gerben로펌의 Josh Gerben 상표 출원 전문 변호사는 “나이키가 크립토킱스를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진단함

■ 필립 모리스, 담배 유통에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 예정

- 26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세계적인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Philip Morris)가 퍼블릭 블록체인을 구축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로 담배 상자에 적힌 납세필증지를 추적하여 업계와 정부에 연간 1억 달러의 손해를 입히는 위조 행위를 방지한다는 것임

- 필립 모리스의 아키텍처 및 기술 혁신 글로벌 총괄 니틴 마노하란(Nitin Manoharan)은 이와 관련해 “업계 전반의 이해당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블록체인을 구축하는 게 목적”이라며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용 사례들이 준비된 상태”라고 덧붙임

■ 미국 최대 보험사 마시, 블록체인 보험 증명 플랫폼 출시

- 26일 미국 보험 전문 온라인 미디어 인슈어런스저널(insurancejournal)에 따르면, 최근 미국 최대 보험사 마시(Marsh)가 미국 지역 고객들을 위한 블록체인 보험 증명서 발급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밝힘
- 2018년 4월 이미 개념증명을 통해 소개된 바 있는 마시의 블록체인 보험 증명서 발급 플랫폼은 기존 시스템상의 수작업 과정을 자동화 및 간소화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게 마시측의 설명임

■ 외신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 암호화폐 = 현금 여부 판결 앞뒤”

- 26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CCN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이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라는 신흥 산업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CCN측의 분석임
- 해당 사건은 JP모건 산하 체이스 은행이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제공하던 암호화폐 구매 서비스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한 고객들이 지난해 4월 제기한 집단 소송으로, 체이스뱅크 측은 “암호화폐는 교환의 매개로 현금과 같은 기능을 하므로 현금으로 분류할 수 있고, 유일하게 다른 점은 암호화폐가 디지털화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수수료 부과는 합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음

■ 뉴욕 검찰, 비트파이넥스 8.5억 달러 손실 은폐 혐의로 기소

- 26일 블룸버그와 CC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가 8억 5,000만 달러가량의 손실을 은폐했다며 미국 뉴욕주 검찰이 비트파이넥스를 기소하자 비트파이넥스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대립과 진실 공방전이 가속됨
- 뉴욕주 검찰은 비트파이넥스가 8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테더(USDT) 준비금을 불법 유용한 혐의를 포착, 법적 조치에 들어갔으나 비트파이넥스는 즉각 이의를 제기함
- 해당 금액이 손실이 아닌 압류액이며, 현재 비트파이넥스의 재무 상태는 양호하다며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음

영 국

■ 머큐리 FX “xRapid 기술 통해 고객 송금 비용 3만 달러 절약”

- 3일 영국 기반의 국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머큐리 FX(Mercury FX)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오늘 고객 한 명이 호주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고 영국에 대금을 송금하는데 엑스레피드(xRapid) 솔루션을 바탕으로 3만 달러 상당의 비용을 절감했다”며 “이는 기존 은행 송금서비스 이용 시 발생했던 비용과 비교하면 매우 저렴한 것”이라고 전함

■ 영국 대형 은행, 블록체인 부동산 프로젝트 참여...1,600억 달러 원가절감

- 17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두(coindoo)에 따르면, 최근 영국 대형 은행 바클레이 은행(Barclays Bank)과 스코틀랜드 로얄은행(RBS, Royal Bank of Scotland)이 부동산 산업 블록체인 시범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남
- 해당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반 인스턴트 프로퍼티 네트워크(Instant Property Network)라는 툴을 통해 전 세계 부동산 업계 정보를 취합, 관련 업무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1,6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임

스 위 스

■ 스위스 증권거래소, 1일 XRP 기반 ‘AXRP ETP’ 출시

- 2일 스위스 증권거래소의 운영사인 SIX 그룹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XRP(시가총액 2위) 기반 상장지수상품(ETP·Exchange Traded Product) ‘아문 리플 XRP ETP’ (Amun Ripple XRP ETP, AXRP ETP)을 상장한다고 공지함
 - 앞서 암호화폐 기반 ETP 상품을 출시한 바 있는 스위스 블록체인 스타트업 아문(Amun)AG는 2019년 3월 11일 SIX로부터 XRP 단일 자산 기반의 ETP 상품인 AXRP의 상장 승인을 얻은 상태라고 밝힘
- ※ ETP(상장지수상품) :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채권(ETN), 상장지수증서(ETC)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의 금융상품

■ 스위스 출판사, 비트코인으로 임금 지급

- 2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위스 소재 출판사 Netzmedien AG가 향후 직원 임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한다고 밝힘
- 미디어에 따르면 회사 경영진은 지급 방식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과 스위스 프랑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투표를 진행했으며, 투표 결과 비트코인 방식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남

■ 스위스 거래소 셰이프쉬프트, 48시간 내 BSV 상장폐지

- 16일 스위스 소재 암호화폐거래소 셰이프쉬프트(ShapeShift)의 최고 경영자(CEO)인 에릭 부어히스(Erik Voorhees)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자오창평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의 관점에 동의한다”며 “향후 48시간 내로 비트코인SV(BSV, 시가총액 12위)를 상장폐지 하겠다”라고 밝힘

프 랑 스

■ 프랑스 금융 당국, 암호화폐 투자 교육 업체 블랙리스트 포함

- 10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파이낸스 매그네이츠에 따르면 프랑스 금융 시장 관리국(AMF)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쿠베라(Kuvera)를 블랙리스트에 새롭게 포함했다고 밝힘
- 쿠베라 산하 2개 브랜드인 쿠베라 LLC와 쿠베라 프랑스는 당국의 규제 범위 밖에서 외환 및 암호화폐와 관련된 투자 교육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 각각 블랙리스트 기업으로 분류되었으며, 2개 업체 모두 인베스트뷰(Investview)의 자회사로 알려짐
- AMF는 이날 “쿠베라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 투자자들에게 전문적인 투자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이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함

■ 프랑스 경제부 장관 “EU 회원국에 프랑스식 암호화폐 규제 권유”

- 16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인용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EU 회원국들을 프랑스 정부가 채택한 암호화폐 규제방안을 적용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보도함
- 앞서 르 메르 장관은 “프랑스의 선례를 따라 암호화 자산에 대한 EU 내 단일 규제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유럽 파트너 국가들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바이낸스 리서치 “프랑스 PACTE 법안 통과...암호화폐 자금유입 기대”

- 17일 바이낸스 리서치 센터가 “지난주 프랑스 의회가 기업 성장과 변화를 위한 행동계획 법안(PACTE)을 통과시키며, 프랑스 보험 자

금의 암호화폐 투자를 간접적으로 허가했다”고 진단함

-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프랑스 중합보험 자산 관리 규모는 2조 3천억 유로 규모로, 이중 ‘집합 투자(collective investment)’와 ‘기타 자산(Others)’이 차지하는 비중은 21.4%에 달한다”며 “최초의 위험자산인 암호화폐 투자가 이 두 분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내다봄
- 이와 관련해 바이낸스 리서치 센터 연구원은 “만약 ‘기타자산’ 중 1%(보수적), 5%(중립적), 10%(공격적)의 자산을 암호화폐에 투자하게 된다면, 10억, 40억, 97억 유로에 해당하는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덧붙임

중 국

■ 중국 정부, 암호화폐 ‘채굴’ 도태 산업으로 지정

- 10일 중국 유력 경제 미디어 매일경제망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발표한 ‘2019년 산업 구조 조정 지도 목록’에서 암호화폐 채굴이 도태 산업으로 분류되었으며, 중국 내 주요 산업을 ‘장려산업’, ‘제한산업’, ‘도태산업’ 등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힘
- 이와 관련해 중국 기술 표준화 연구원의 리밍 주임은 “해당 지도 목록을 기반으로 정책이 시행되면, 채굴 업계에 작지 않은 파장을 가지고 올 것”이라며 “인건비, 주변 환경 등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중국 채굴업체들이 동남아 등 해외로 탈출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함

■ 중국 공신부 “올해 안에 블록체인 표준 정의 발표”

- 10일 중국 현지 미디어 신화차이징에 따르면, 중국 공신부(공업정보화부) 블록체인 연구소 주임 리밍이 중국 심천에서 열린 ‘2019 중국 국제 블록체인 기술과 응용 회의’에서 “중국은 올해 안에 블록체인에 대한 표준화된 정의를 내릴 것”이라고 밝힘
- 또한 그는 “향후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방향은 인프라 플랫폼”이라며 “블록체인 컨센서스 메커니즘, AI 딥러닝을 하나의 프레임 워크로 묶는 플랫폼이 필요하며, 더 많은 블록체인 종사자들이 본질적인 기술에 집중하여 공업화 및 체계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임

■ 중국 텐센트 첫 블록체인 게임, 4.11일 출시

- 11일 중국 1위 게임사 텐센트의 첫 블록체인 게임 ‘이치라이줘야오’가 출시됨

- 텐센트가 지난 2년 동안 개발한 이 게임은 플레이어의 게임머니, 아이템 등 소유권이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기록돼 운영진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는 설명임

■ 중국 1분기 블록체인 특허 출원, 전년 대비 6배 이상 증가

- 11일 중국 국가 지식재산권국이 1분기 블록체인 특허 보고서를 발표함
- 이에 따르면 3월 31일 기준, 중국 1분기 블록체인 특허 출원 건수는 2,041개로 전년도 같은 기간(317개) 대비 6배 이상 많았으며, 이는 지난해 연간 특허 출원 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된다고 밝힘
- 블록체인 특허 출원 1위 기업은 중국 대표 IT 기업 알리바바로 186개를 기록하였으며, 그 외 상위 20개 기업 순위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기업으로는 중국 최대 민영 보험사인 핑안그룹의 자회사 핑안커지, 중국 대형 IT 기업 쉐네이의 클라우드 컴퓨팅 및 블록체인 자회사 원썬테크놀로지(Onething technologh) 등임

■ 돈 탭스콧 “중국 위안화, 디지털화 추진 전망”

- 19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CCN에 따르면, ‘블록체인 혁명’의 저자이자 블록체인 연구소(BRI) 공동 창업자인 돈 탭스콧(Don Tapscott)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20년 후 중국은 BTC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인들은 암호화된 위안화를 계속해 사용할 것이고 중국 중앙은행은 위안화의 디지털 화폐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함
- 이와 관련해 그는 “최근 동아시아 국가를 순회하며 느낀 것은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중국 정부는 철저한 ‘이분법’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장려하되 암호화폐는 배척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임

■ 중국 상하이 종합병원, 블록체인 기반 진료 기록 공유

- 26일 중국 현지미디어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소재 종합병원 ‘상해 제일인민의원’ 등이 IT 기업 텐센트의 기술을 활용, 블록체인 기반 진료 기록 공유 시스템을 구축함
- 블록체인 시스템과 함께 전자 카드 발행 및 진료 기록 구현 표준을 통해 의료 분야 정보 서비스를 혁신한다는 설명임

■ 중국 4개 공공기관, 블록체인 지적재산권 보호 프로젝트 공동추진

- 26일 중국 경제 미디어 시나 파이낸스(Sina Finance)에 따르면, 중국 국가판권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신식화부(공신부),公安部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국가 기관들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젠왕 2019’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블록체인을 통해 온라인 지적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밝힘

일 본

■ 일본 시스템 개발업체, 블록체인 고속 정보 처리 시스템 출시

- 1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현지 시스템 개발업체 트라이아트(TRIART)가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출시하고, 자율 자동차, 의료 등 분야 대량 데이터 처리에 활용된다고 밝힘
- 미디어에 따르면 트라이아트는 판매 첫해 목표 매출량 50개, 매출액은 수억 엔화 이상을 제시함

■ 일본 SBI 그룹, 예술품 소유자에 블록체인 ‘인증서’ 제공

- 9일 일본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크립토워치에 따르면, 최근 일본 금융 대기업 SBI그룹 산하 SBI아트 옥션이 현지 블록체인 스타트업 스타트반(Startbahn)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예술품 경매 시장을 활성화하고 작품에 대한 소유권 증명 등의 블록체인 인증서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일본 기업 65%, 블록체인 미래에 긍정적

- 12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Gartner)재팬의 설문조사에서 ‘향후 10년 사회 및 비즈니스에 블록체인은 어떠한 영향을 줄까’ 라는 질문에 65%의 일본 기업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함
- 또한, 다수의 응답자는 “블록체인은 인터넷에 영향을 끼쳐, 에어비앤비(Airbnb)처럼 시장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블록체인을 이해하는 경영진은 16.7%로, 지난해 2월(27.8%)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FSB, 암호화폐 자산 규제 관리 기관 리스트 발표

- 13일 일본 중앙은행의 공지에 따르면, 국제금융규제기관인 금융안정화위원회(FSB)가 지난 4월 5일 암호화폐 자산규제관리기관 리스트를 발표하고, 해당 리스트는 11~12일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에 제출되었다고 밝힘
- 리스트에는 FSB 소속 각국 금융당국 및 기관과 글로벌 범위의 암호화폐 자산 관련 기구가 포함됨

■ 일본 금융청, 암호화폐거래소 내부 규정 엄격 제정 권고

- 16일 로이터 통신이 일본 금융청 고위급 관계자를 인용, 금융청이 현지 한 암호화폐거래소에 회사 내부 규정을 엄격하게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보도함. 여기에는 암호화폐를 콜드월렛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됨
- 금융청 및 암호화폐 거래협회는 지난해 연쇄적인 거래소 암호화폐 유출 사건 이후 현지 거래소에 엄격한 프라이빗 키 관리 및 콜드월렛을 통해 자산을 관리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이후 콜드월렛을 통한 자산 관리가 증가하면서 거래소 내부 직원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는 게 미디어의 설명임
- 이에 일본 금융청이 관련 기업 내부 규정을 조사한 결과, 정기적으로 책임자를 교체하는 등의 기본적인 규정조치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일본 경찰·금융·소비자청, 암호화폐 법적 분쟁 관련 상담창구 개설

- 17일 일본 경찰청, 금융청, 소비자청이 연합해 제작한 ‘암호화폐 관련 법적 분쟁’ 관련 공고문을 발표함

- 해당 공고문은 “최근 일본 국경 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암호화폐가 증가함에 따라 거래소, 투자 관련 법적 분쟁 사건이 늘고 있다”고 밝히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관련 사건 전담 상담창구를 최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남

■ 일본 FSA“암호화폐거래소 인수 시 사업자 등록 불필요”

- 25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이 “기업이 암호화폐거래소를 인수할 때, 사업자 등록을 재차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하여 FSA는 “비즈니스 모델 혹은 내부 컨트롤 시스템에 변화가 있을 시에만 사용자 보호 시스템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 일본, T20주최...G20 앞두고 암호화폐 사항 논의

- 25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일본이 암호화폐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두 차례의 T20(Think20) 회의를 주최한다고 전함
- T20은 G20 주요국을 도와 글로벌 시급 사안을 해결하고 정책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G20 회원국 정책 입안자가 참여하며, 5월 말 G20을 앞두고 도쿄에서 열릴 예정임

■ 일본 SBI 그룹 산하 암호화폐거래소, 서비스 출시 1년 만에 이익 실현

- 26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재팬이 일본 SBI 그룹이 최근 발표한 2018년 3월까지의 연간 실적을 인용, 암호화폐거래소 VC트레이드의 운영사이자 암호화폐거래소 SBI버추얼커런시(SBI Virtual Currencies)의 세전 이익이 322만 2,500달러를 기록, 서비스 출시 1년 만에 이익을 실현했다고 보도함

기 타

■ USDT, 하루 거래 건수 3.8만건...역대 최고치

- 2일 암호화폐 분석 사이트 코인메트릭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3월 31일(UTC) USDT(United States dollar Tether)하루 거래 건수가 38,150건을 기록, 출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밝혔으며, 암호화폐 정보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같은 기간 테더의 일일 거래액은 94억 달러로 비트코인(100억 2,000만 달러)에 이어 일일 거래액 기준 2위를 기록함
- 최근 테더는 법정화폐 100% 연동 조항이 삭제된 사실이 알려지며 거래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와 관련 테더의 스튜어트 호그너(Stuart Hoegner) 법률 고문은 “테더의 준비금은 현금, 현금 등가물 및 기타자산을 포함하고 있고, 유통 중인 USDT의 규모와 같거나 더 큰 규모를 유지한다”며 “준비금 정책 변경에 관한 결정은 변화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추세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함

■ WEF “전 세계 중앙은행 40여 곳, 블록체인 연구개발에 주력”

- 4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가 세계경제포럼(WEF)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 “전 세계 중앙은행 40여 곳이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함
- 이와 관련해 해당 보고서의 집필총괄 애슐리 란퀴스트(Ashley Lannquist)는 “각국 중앙은행들은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몇 년 후, CBDC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봄

■ 외신 “G20 암호화폐 AML 규정, 6월 G20 회의서 합의 전망”

- 5일 일본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포스트가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를 인용 “G20 국가들의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테러 자금조달 방지(AML) 규정이 2019년 6월 8·9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 예정인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합의될 전망”이라고 전함
- 암호화폐 관련 규제안은 앞서 수차례 G20 의제에 포함되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논의가 지속되고 있었으며, 최근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혐의가 국제적으로 대두되어 이 같은 국제적 위협이 암호화폐 AML 규정 합의를 가속화할 것이라 분석함

■ 레알 마드리드, 블록체인 기반 기념품 앱과 파트너십 체결

- 14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BTC매니저에 따르면, 스페인 유명 축구 클럽팀 레알 마드리드가 블록체인 기반 축구 기념품 앱 ‘Fantastec SWAP’ 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힘
- 이에 따라 레알 축구 팬들은 해당 앱을 통해 공식 클럽 기념품 등을 사고팔 수 있게 되었으며, 아스날, 도르트문트 등 다른 축구 클럽팀 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추가적인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MS · 이더리움기업연합 · 기업 전용 암호화폐 컨설팅 프로젝트 출범

- 17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더리움 기업 연합(EEA, Enterprise Ethereum Alliance)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기업 전용 암호화폐 컨설팅 프로젝트 ‘Token Taxonomy Initiative’ 을 공동 출범하였다고 밝힘

- 해당 프로젝트에는 액센츄어, 산탄데르은행, 블록체인 리서치 인스티튜트, 클리어매틱스, 컨센시스, 디지털 애셋, EY, IBM, ING, 인텔, JP모건, Komgo, MS, R3, Web3 Labs 기업 등이 참여함

■ 전 세계 IEO프로젝트 50건...35건 상장 완료

- 20일 ICO 전문 평가업체 ICO벤치에 따르면, 4월 20일 기준 전 세계 IEO프로젝트 수는 50건으로, 이 중 5개 프로젝트가 4월 22일~5월 1일 사이에 상장할 예정이라 밝힘
- 상장을 마친 IEO 프로젝트는 35건,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10건으로 집계되었으며, IEO 프로젝트를 출시한 거래소는 16곳으로, 이중 Exmarkets Launchpad가 가장 많은 프로젝트(11개)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남

■ 블록데이터 “블록체인 자금 이체, 전통 시스템보다 388배 빨라”

- 21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브레이브 뉴코인이 블록체인 전문 분석업체 블록데이터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 “블록체인을 통한 자금이체는 전통 금융시스템보다 388배 빠르고, 127배 저렴하다”고 보도함
- 세계은행의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글로벌 송금 업계의 규모는 매일 약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처리하며, 글로벌 송금시장은 향후 2022년까지 1조 달러, 2025년에는 1조 4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게 세계은행 측의 전망이다
- 다만, 전통 금융업계는 결제 및 송금 업무 처리에 상당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블록체인 시스템은 기존 중간역할을 생략해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을 처리할 수 있다는 분석임

■ 글로벌 9개 명문대, 블록체인 공동연구 착수

- 24일 미국 학술지 에듀케이션다이브(EducationDive)에 따르면, 글로벌 9개 명문대학교가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통한 학위 증서, 학술 기록 등의 디지털화 공동연구에 착수했다고 발표함
- 이번 연구에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네덜란드 델프트공과대학교, 독일 포츠담대학교,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멕시코 몬테레이공과대학교, 독일 뮌헨공과대학교, 미국 UC 버클리, UC 어바인, 캐나다 토론토대학교가 참여함

■ 존맥아피, 암호화폐 직불카드 출시 예고

- 28일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이자 세계적인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자 존맥아피(John McAfee)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조만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 신용카드(crypto credit card)가 출시될 계획”이라고 밝힘
- 이어 그는 “선착순 12,000명에게는 맥아피의 얼굴이 담긴 특별 에디션 카드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하였으며, 한시간 뒤, 그는 “신용카드(credit card)는 부적절한 명칭이고 직불카드(debit card)에 가깝다”며 “어디서든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고, 현지 통화로 전환도 가능하다”고 덧붙임

회원사 동향

[2019. 4월]

한국블록체인협회

라온시큐어 · 병무청,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추진

라온시큐어와 병무청이 함께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공동 구축하고, 민원 포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인증서 전자서명 및 부인방지 블록체인 분산 ID(DID, Decentralized Identifiers)기반 인증 플랫폼으로 대체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와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온라인으로 민원 서류를 제출하거나 병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임

코인플러그, 한국남부발전과 REC 거래 시스템 구축

코인플러그가 한국남부발전과 블록체인 기반 신재생에너지 공급증명인증서 (REC)거래 시스템을 구축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추진한 ‘2019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의 일환

다자간 신재생에너지 공급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거래 관련 문서를 블록체인 기반 공문서로 저장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설명임



BLOCKCHAIN 동향과이슈

2019. 5월 제7호